

雪 岳 山 探 訪 記

國立公園 이용은 圖書館 대하듯

申 光 湜

<建設部公園課>

빛속의 千佛洞威容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밤부터 내리는 비를 걱정하며 장비를 점검하고 일행중 4명이 기권, 7명만에서 千佛洞~大靑峰~五色코오스를擇하여 5시半에 여관을 출발하여 길게 흐린 새벽길로 飛仙臺를 거쳐 千佛洞溪谷의 陽瀑山莊에 당도하니 비는 오히려 세차게 내려 비 속에서나마 千佛洞의 위용을 맛보았다. 여기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백인수, 김진영의 두 사람이 다시 기권하자 5명으로 줄어든 一行이 山莊을 出發한 것은 9시경, 陽瀑을 조금 지나자 千佛洞溪谷의 심장부인듯 左右의 奇岩絶壁, 깊은 峽谷에 소용돌이치는 瀑布와 沼바위 틈에서도 굳세게 자라고 있는 老松과 빨갛게 물든 단풍은 빛속에서도 절경임을 실감케 한다. 천당폭포를 지나 죽음의 계곡을 옆으로 지나면서 부터 溪谷은 더욱 좁혀지고 險하다. 한참 후 溪谷을 벗어나 太白 준령인 물넘이고개를 힘겨우게 올라 昭陽의 發源인 伽倻洞溪谷의 회운각 待避所에서 한숨을 돌리고 다리 힘의 限界를 느끼며 小靑稜線에 기어 오르니 12시半, 세찬 비바람이 더욱 視野를 좁히는 데 주위에 철쭉 잣나무 누운향나무 등 高山植物群落이 강한 西北風과 寒冷에 시달려 키를 넘지 않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이 異色的이다.

小靑峰오르니 氣溫도 急降下

海拔 1.4km의 小靑峰에 오르니 氣溫까지 急降

<봉정암 후면의 석가봉>

73년 10월의 雪岳祭에 職務上의 現場踏査를 겸한 一行 11인이 서울을 출발하여 快適感이 가득한 京春街道에 들어서니 校文里를 지나 바른편의 金谷陵 天馬山의 웅장한 모습, 北漢江邊에서는 八堂湖 淸平湖 衣岩湖로 이어지는 湖畔의 連續, 불붙듯 단풍이 물든 주위의 산들과 그 사이에 수놓인 푸른 잣나무 숲, 등산폭포와 삼악산은 都市生活에서 곁쌍인 心身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이곳의 별미라는 막국수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하고 洪川, 麟蹄를 거쳐 寒溪嶺코오스의 內雪岳에 들어서니 日氣不順으로 展望이 좋은 편은 아니나 길게 물든 단풍과 奇岩들이 장관이며 將帥臺山莊에서 당귀차를 들며 바라본 大勝嶺쪽은 웅장한 奇岩과 老松들이 어울려 위압감을 주고 海拔 960m의 寒溪嶺에서는 길은 안개와 氣溫의 急降下로 추울 정도다. 오를 때와는 單單으로 급한 내리막길로 五色溫泉을 둘러 8시가 다되어 雪岳洞에 도착하니 조그만 마을이 祝祭人波에 쌓여 우리 일행도 가까스로 비선여관에 방 두개를 얻어 野營만은 면했다.

下 0도 以下인듯 비바람은 진눈깨비를 물고와임 시 休憩所 附近에서 어렵사리 불고기 食事を 했으나 비바람은 더해가기만 하여 코스를 아예 포기한채 모두가 初行이어서 망서리든차 五色에 가는 중이라는 休憩所 경영자인 地方民의 案内로 五色코오스를 出發한 것이 午後 2시가 지나서다. 小靑~寒溪嶺間的 稜線을 바른편에 끼고 1,459m 高地를 마지막으 가파른 내리막길을 들어서면서 부더는 작게 끼인 등산화 탓으로 질퍽하게 젖은 발 끝의 말초신경을 자극해 걸을 수가 없을만치 아프기 시작하여 열 걸음을 치며, 한참을 내려가 계곡을 횡단, 다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빙빙 돌면서 기진맥진 할즈음 右측을 보니 높이 70餘나 되는 장관의 폭포가 있지 않은가 이 폭포를 피하느라고 오르내리는 험한 우회로였음을 뒤늦게 알고 폭포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이 비도 거의 멎어 주었다 여기서부터는 계곡을 따라 길이 트여있으나 利用이 많치않아 길은 더욱 희미해지고 溪谷물이 불어나 몇번인가 길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안내자가 없었던 遭難을 면치 못했을 위험한 行路였으나 도중에서 다래를 따먹은 맛은 잊혀지지 않는다.

五色에 당도하자 再生한 기분

해가 이미 기울어지는 6시가 다되어 五色에 무사히 당도하자 마치 이 世上에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몇잔의 막걸리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가 위로와 푸념을 늘어놓았다. 우리 일행은 野營用텐트하나 없는 허술한 準備와 時間의 餘裕도 없는 日程으로 險한 初行길을 무작정 들어서 젊은 혈기만으로 모험을 하다 事故를 讞報道를 입을 때면 산을 사랑하는 同友人으로서 마음 아팠던 일이 불현듯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어 이 스틸과 역경의 山行經驗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로부터 雪岳을 찾기 다섯번 그러면서도 雪岳의 참모습을 觀望할 機會를 가져 보지 못했을 만큼 이 산은 심오하고 변화가 많으며 國立公園, 天然記念物保護區域으로 保護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自然景觀地이다

自然 손상없게 保護해야

좋은 實例로 週末이면 서울市民의 野外休養地가 되고 있는 近郊의 北漢山, 道峰山 등 無秩序한 利用으로 山허리가 문드러지고 溪谷이 汚染되는등 自然損傷이 極甚한 것을 볼때 保護와 規制가 時急함을 느끼게 한다.

오는 9월에 嶺東高速道路가 풀리고 江陵~東草間 海岸道路가 말끔히 鋪裝되면 雪岳地域을 찾는 觀光客이 殺倒할 것으로 보여 저우히 不安感이 앞선다. 雪岳山마저 北漢山, 道峰山처럼 損傷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다. 미루어오던 雪岳洞의 集團施設地區計劃도 이런 與件에 對備하여 노루목 밖으로 確定하고 公園다운 施設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苦心하고 있는 중이다. 美國의 어느 國立公園內에선 高價로 鋪裝한 道路中 30%를 廢止했고 日本의 富士山에 高度2,000m까지 道路를 내어 生態系의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을 傳해 들을 때 人口密度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치밀한 계획과 規制措置가 要求되고 우리 모두가 自覺과 協助로 후회되지 않는 施設이 造成되도록 努力하여야 겠다.

外國선 收容限界 설정

한편 외국에서는 그 공원구역이 포용할 수 있는 收容限界(Caring Capacity)를 미리 검토하여 그 한계 이상은 아예 입장까지 금지시켜야 된다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한다. 登山의 便利만을 위주로 등산로를 새로히 개발하는 것도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히다를 문제다. 가급적이 존등산로를 활용하고 樹林地帶를 마구 밟는 것을 삼가하여 動植物들의 安息處로 保護하여 주는 습성을 가질 때 머지 않아 우리 나라에서도 길옆에서 사슴이 거닐고 친구가 되어 주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확신한다. 國立公園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自然生態系의 學術研究地임을 인식하여 아무쪼록 도서관에 출입하는 것같은 마음가짐으로 대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다.